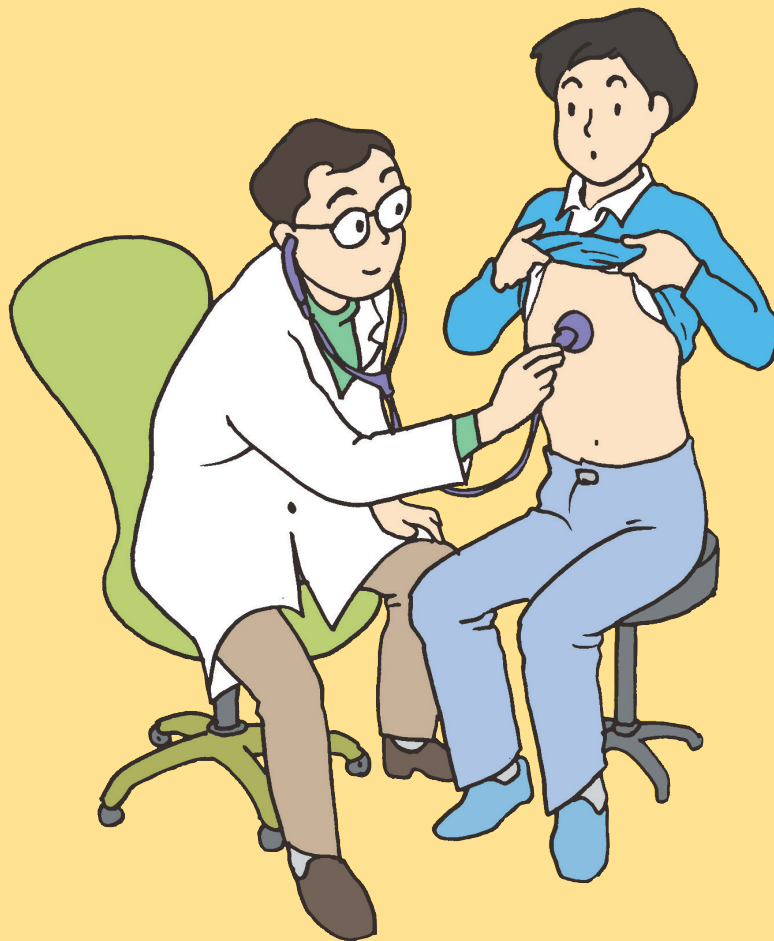


병원 이용에 대해 알아봅시다





책 소개

- 이 책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과 쉬운 단어를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
- 이 책은 병원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 이 책은 발달장애인이 좀더 쉽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 이용 방법

- 이 책은 병원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려줍니다.
- 이 책은 병원 의사가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알려줍니다.
- 이 책을 보면서 병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미리 알면, 병원이 무섭지 않습니다.
- 이 책을 부모님이나 가족, 도와주는 사람과 같이 보면서 병원 이용에 대해 연습을 해 볼 수 있습니다.
- <병원이용 워크북>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순서



1. 아플 때
병원 이용하기

6



2. 아프지 않을 때
병원과 친해지기

18



3. 부록

- 아픈 곳에 맞는 병원 알아보기
- 진료수첩 만들기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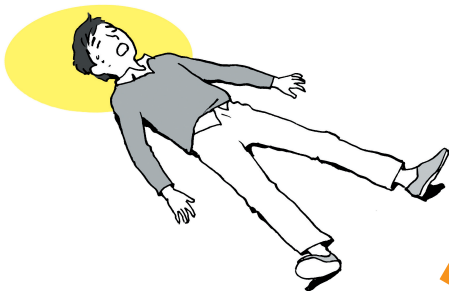
병원 이용에 대해 알아보시다

1

아플 때 병원 이용하기

-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 나를 잘 아는 병원에 갑니다
- 병원에 갈 때, 준비해야 할 것
- 접수하기
- 의사에게 아픈 곳을 말합니다
- 의사가 내 몸을 진찰합니다
- 의사의 설명을 듣습니다
- 검사 받기
- 진료비 내기 / 예약하기
- 약국에서 약 사기
- 집에 와서 해야 할 일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아프면, 참지 않습니다.

병을 참으면,

병이 점점 더 심해져서
치료가 어렵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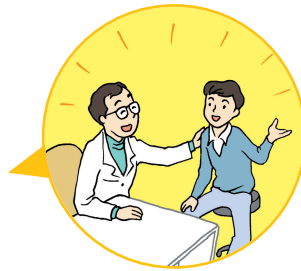
병을 참으면,

병을 점점 더 심해져서
나중에 응급실을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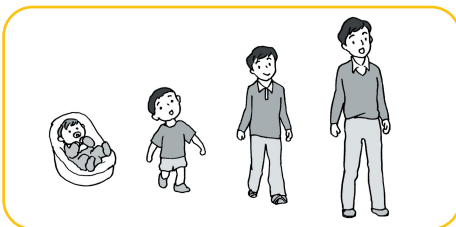
나를 잘 아는 병원에 갑니다



나를 잘 아는 의사가 있는
동네 병원에 갑니다.

나를 잘 아는 의사는
나의 건강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감기 등 간단한 증상으로 언제든지 편하게 찾을 수 있는
동네 병원을 단골(주치의)로 정해 두면 편리합니다.



어렸을 때
장애등급을 받았던
종합병원에 갑니다.



내가 어려서 부터 다녔던
종합병원에서는
나의 건강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가 아프면



치과



아픈 것에 맞는
병원에 갑니다.



다쳤으면



외과



아픈 부위에 따라
진료과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록참고)

병원에 갈 때, 준비해야 할 것



병원가기 전
병원에 전화해서
진료시간을 예약합니다.

환자가 많지 않은 시간으로
예약해달라고 하면
진료받을 때 편리합니다.



복지카드, 휴대폰, 돈을
준비합니다.



진료수첩이 있으면
가지고 갑니다.



병원에 혼자 갈 수도 있고,

도와줄 사람과 함께
갈 수도 있습니다.

도와줄 사람은
가족, 친척, 친구, 활동지원사,
복지관 직원 입니다.



병원에 처음 갈 때에는
도와줄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하기



안내 · 접수하는 곳으로
갑니다.

접수하는 곳을 찾기 어렵다면,
병원 직원에게 물어봅니다.



접수하는 직원이
나의 이름, 생일을 물어봅니다.

이름과 생일을 말합니다.



복지카드나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접수가 끝나면 다시 돌려받습니다.



접수가 끝나면,

진료실 앞에서
기다립니다.



환자가 많을 경우
30분~1시간 정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의사에게 아픈 곳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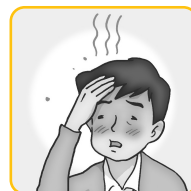


기다리다가
직원이 내 이름을 부르면,
안내하는 진료실로
들어갑니다.



진료실 의자에 앉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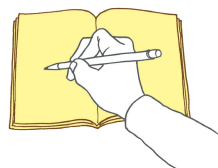
의사가
“어떻게 오셨어요?”
“어디가 가장 불편한가요?”라고
 물어봅니다.



내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말합니다.



아픈 것이
잘 생각나지 않을 때,
진료수첩을 보여줍니다.



병원 오기 전에, 아픈 것을
<진료수첩>에 미리 적어 두었다가
수첩을 보여주면 편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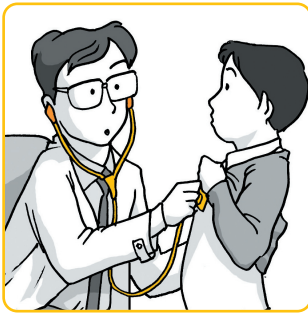
의사가 내 몸을 진찰합니다



의사가
내 몸을 진찰합니다.

진찰을 위해
내 몸을 만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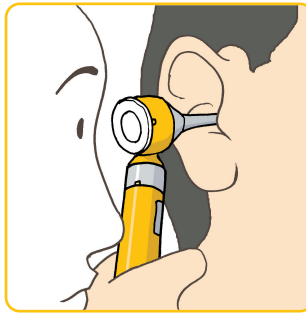
여러가지 진찰도구로
내 몸을 진찰합니다.



숨소리를 듣습니다.
청진기



입 안을 볼 때 사용합니다.
설압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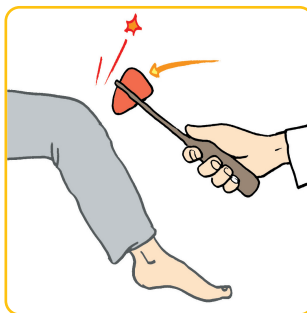
귀 안을 봅니다.
이경



몸의 온도를 잽니다.
체온계



불을 켜고
자세히 봅니다.
펜라이트



팔, 다리를 두드릴 때
사용합니다.
의료용 해머



심장과 혈관상태를
알아 봅니다.
혈압계



많이 불편하면
“싫어요”라고
말하면 됩니다.

의사의 설명을 듣습니다



진찰이 끝나면

의사가
내가 왜 아픈지,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설명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봅니다.



잘 모르겠으면,
천천히 쉽게 설명해
달라고 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진료수첩>에
적어달라고 합니다.

검사 받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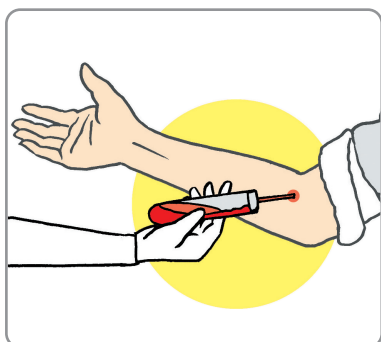
의사가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

검사를 받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안내 · 수납하는 곳에 가면,

직원이
가야 할 곳을 알려줍니다.



혈액 검사

내 피를 조금 뽑습니다.



소변 검사

종이컵에 오줌을
반컵만 담아서
간호사에게 줍니다.



엑스레이 검사

몸 안을 사진 찍는 것입니다.
검사하는 사람의 안내를 잘 듣고
그대로 하면 됩니다.

진료비 내기 / 예약하기



진료와 검사가 끝나면,

안내 · 수납하는 곳으로 갑니다.



한번 더 병원에 와야 한다면,
병원에 오는 날짜를
예약합니다.

내가 원하는 날짜와
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는 날짜를
서로 이야기해서 결정합니다.



다시 오는 날짜를
크게 써 달라고 합니다.



약을 먹어야 한다면,
처방전을 받습니다.



진료비를 냅니다.
돈이나 신용카드를 줍니다.

영수증을 받습니다.



약국에서 약 사기



처방전을 받았다면,
약국에 가서
약을 사야합니다.



처방전을 받지 않았으면
집으로 가도 됩니다.



처방전을
약국 직원에게 줍니다.



알약을 삼키기 어려우면
약사에게 미리 말합니다.



약사가
약 먹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잘 듣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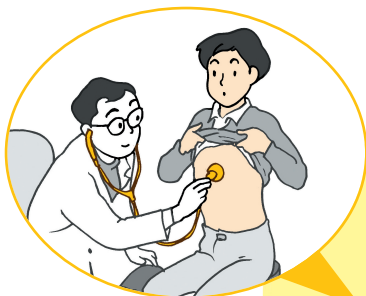
잘 모르겠으면,
천천히 쉽게 설명해
달라고 말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약사의 설명을
수첩에 적어달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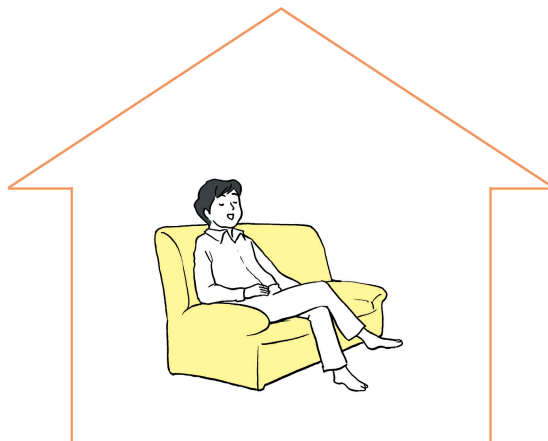
집에 와서 해야 할 일



병원에서
진료받은 내용을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약 먹는 시간에
약을 먹습니다.



의사가 말해준 내용을
잘 지킵니다.

병원 이용에 대해 알아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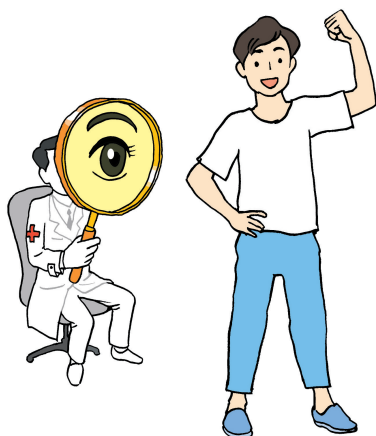
2

아프지 않을 때 병원과 친해지기

- 아프지 않을 때도 병원에 갑니다
- 장애인 주치의
- 진료수첩이 있으면 편리합니다



아프지 않을 때도 병원에 갑니다



아프지 않을 때, 병원에 가서
나의 건강을 검사합니다.

조금 아플 때는 치료하기 쉽습니다.
병이 커지면 치료하기 어렵습니다.
미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프지 않을 때, 병원에 가서
병원과 친해지도록 합니다.

병원이 편안해지면
병원은 무서운 곳이 아닙니다.



의사와 자주 만나면
의사가 나를 잘 알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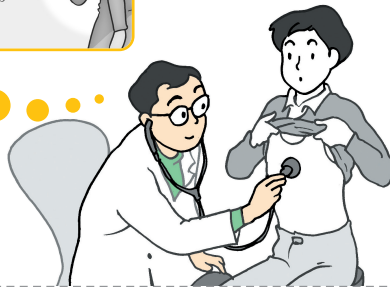
의사가 나를 잘 알면,
치료를 받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장애인 주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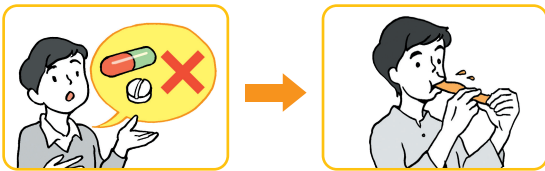


장애인 주치의는
나를 잘 아는 의사입니다.



장애인 주치의는
나의 건강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왜 아픈지
나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치의는
내가 싫어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편안한 방법으로
진료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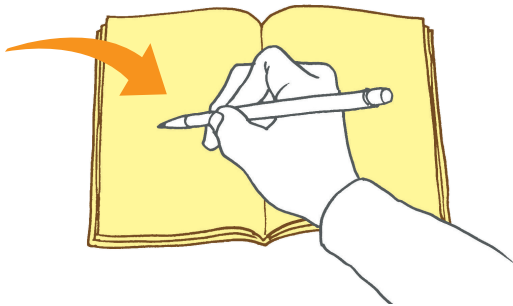


장애인 주치의는
내가 사는 집에 와서
진료를 해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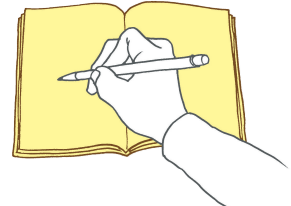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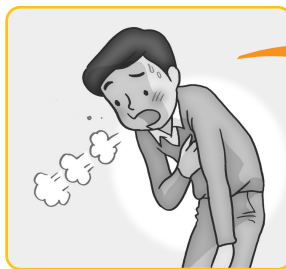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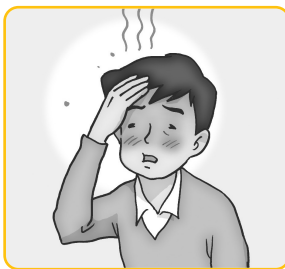
장애인 주치의 신청하기

- 장애인 주치의제도는 등록된 발달장애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건강 교육과 방문진료(연12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주치의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로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1577-1000)

진료수첩이 있으면 편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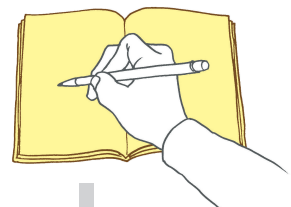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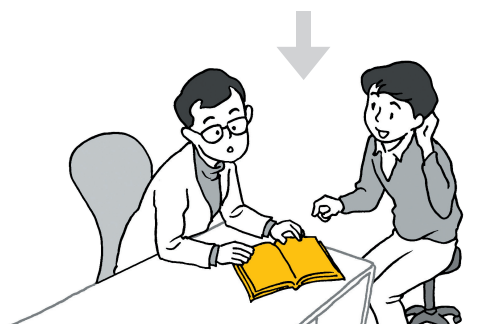


진료수첩은
나의 건강과 병원진료에 대한
내용을 적어 두는 수첩입니다.



내가 아픈 곳을 수첩에 적어두었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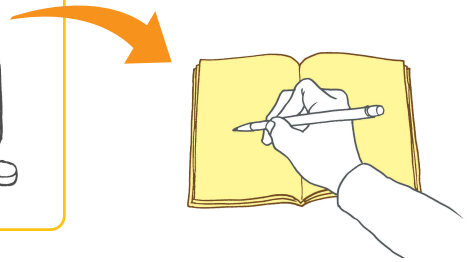
의사에게 보여주면,
아픈 것을 설명하기 편리합니다.



그동안 내가 치료받은 것을 수첩에 적어두었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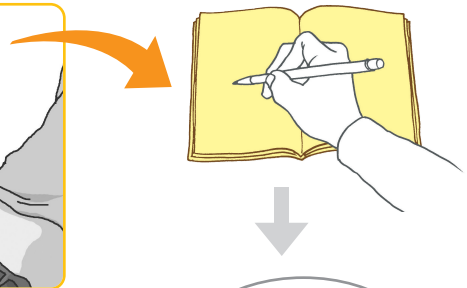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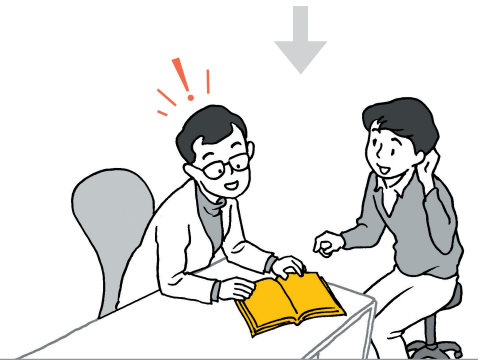
의사에게 보여주면,
의사가 나의 건강과 아픈 것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약이 있다면,
의사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수첩에 미리 적어 두면
약 이름을 알려주기 편리합니다.



의사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을
수첩에 적어두었다가

의사에게 보여주면,
의사가 내게 맞는 방법으로 치료합니다.



의사나 약사가 하는 설명을
잘 모르겠으면,

수첩에 적어달라고 합니다.

병원 이용에 대해 알아봅시다

3

부록

- 아픈 곳에 맞는 병원 알아보기
- 진료수첩 만들기



아픈 곳에 맞는 병원 알아보기



어느 병원에
가야 하는 지
잘 모르겠다면...



1. '주치의'가 있다면,
주치의 병원에게 먼저 갑니다.



2. 자주가는 동네 병원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내과)에
먼저 갑니다.

● 이비인후과

귀, 코, 목구멍을
진찰하고 치료하는 곳

● 피부과

피부를 진찰하고
치료하는 곳



● 안과

눈을 진찰하고 치료하는 곳

● 치과

이가 아플 때
진찰하고 치료하는 곳

● 가정의학과 몸 전체를 두루두루 진찰하는 곳

● 소아청소년과 어린이와 청소년의 몸 전체를 두루두루 진찰하는 곳

● 응급의학과(응급실) 많이 아플 때 신속하게 치료하는 곳

● 재활의학과 장애가 있는 부위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치료하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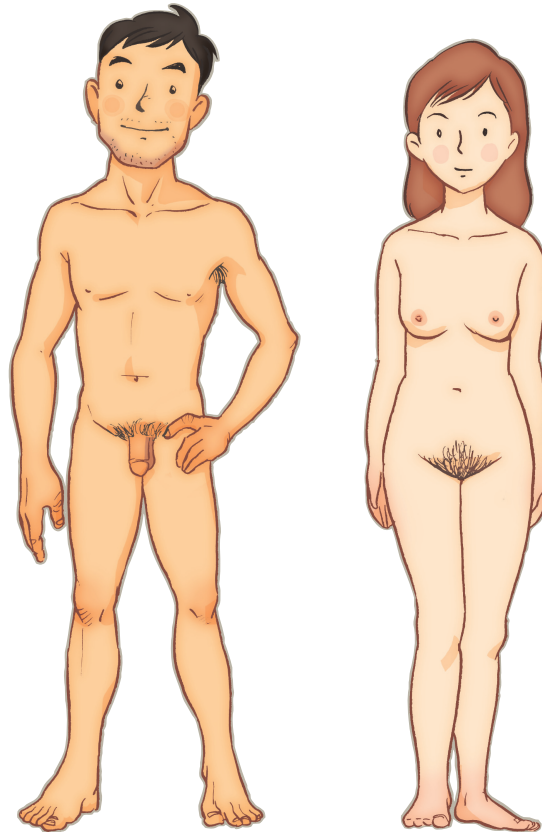
● **신경과**
머리 속을 진찰하는 곳

● **정신건강의학과**
마음을 진찰하고 치료하는 곳

● **신경외과**
머리 속을 수술하여 치료하는 곳

● **내과**
가슴과 배 안쪽을 중심으로
몸 전체를 두루 진찰하는 곳

● **외과**
주로 배 안쪽을
수술하여 치료하거나
몸 전체를 두루 진찰하는 곳



● **산부인과**
아기를 낳거나
여성의 자궁이나 질을
진찰하고 치료하는 곳

● **비뇨의학과**
고추나 방광을
진찰하고 치료하는 곳

● **마취통증의학과** 아플 때 주사나 침으로 통증치료를 받는 곳

● **성형외과** 얼굴이나 손을 정밀하게 수술하는 곳

● **정형외과** 주로 팔과 다리를 수술하여 치료하는 곳



진료수첩 만들기

부모님이나 가족,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나의 진료수첩을
만들어 보세요.



1. 수첩을 준비합니다.
2. 표지에 제목을 씁니다.

진료 수첩

이런 글을 적습니다. 

의사 · 간호사 · 약사 선생님!
보신 후에 저에게 꼭 돌려주세요. ^^

3. 첫 페이지에는 <기본정보>를 씁니다.

- 이름, 생년월일, 성별
- 장애유형과 등급(등록날짜)
- 주요 병명(약물복용)
- 주요 과거력(수술이나 치료했던 경우)
- 가족사항 및 주요 돌봄제공자 연락처
- 기타 건강상의 특이사항: 혈액형, 알레르기, 몸무게 등

이름: ○○○

생년월일: 1999년 11월 21일

성별: 여성

장애의 종류: 지적장애

장애의 정도: 중증(2019)

주요 병명:

1) 다운증후군(1999년)

2) 고혈압 / 코자50mg 하루 한번

3) 뇌전증 / 데파코트서방정500mg 하루 한번

4) 불안장애 / 자낙스0.5mg 자기전에 한번

주요 과거력: 2002년 심장판막수술을 받음

보호자 이름: ○○○ (엄마)

보호자 연락처: 010-1234-5678

혈액형: A+

알레르기: 없음

몸무게: 57kg

4. 다음 페이지에는 부모님이나 지원자가 의사에게 알리는 내용을 씁니다.

- 의사소통 방법
- 좋아하는 것
- 싫어하는 것
- 의사에게 하고 싶은 말: 약 먹는 방법, 주요 과거력

< 나를 소개합니다 >

말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림이나 동작으로 설명해주세요.

달리기를 좋아합니다.
기분이 좋으면 노래를 부릅니다.

피부감각이 예민합니다.
큰 소리가 나면 깜짝 놀랍니다.
갑자기 만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만나자마자 말 거는 것은 싫어요.

< 의사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 >

약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약이 너무 많아지면 먹기 힘들니다.

천식이 있습니다.
경련을 연 2-3회 합니다.
당뇨병이 있지만 약은 안먹고 있습니다.

1년전 길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3년전 어지럼증으로 실신한적이 있습니다.
불안하면 소리를 지를 때가 있습니다.

천천히 질문해주시면 대체로 잘 이해합니다.

5. 다음 페이지부터는 일기처럼 적습니다.

왼쪽은 아픈 것을 적습니다. 오른쪽은 빈 페이지로 남겨둡니다.

- 날짜: 오늘 날짜(아픈 날짜)를 씁니다.
- 증상: 아픈 곳, 언제부터 아팠는지, 어떻게 아픈지 등 가능한 자세히 씁니다.
- 아랫쪽에 지금 아픈 것에 대해 의사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을 씁니다.

날짜: 2019년 10월 15일
증상: 어제부터 목이 따끔거림.
기침이 나고 콧물은 안남.
집에서 열은 37도 였음.

<의사선생님께>

예전에 받았던 약을 먹었는데
계속 아파요.
열이나서 해열제를 먹고 왔어요.

필요하면 피검사 해주세요.
충분히 검사 받고 싶어요.

주사는 싫어요.
저는 알약을 잘 못삼켜요.
가루약으로 주세요.
하루에 세 번 먹기 힘들어요.
두 번만 먹고 싶어요.

왜 아픈가요?
어떻게 치료해야 하나요?
병원에 언제 또 와야 하나요?
써주세요.



오른쪽은 빈 페이지로 남겨두세요!

의사, 간호사 또는 약사선생님이 쓰는 곳입니다.

